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서 유 리*·조 규 화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디자인과

A Study on the American Hippies and Their Fashion

Yoo Lee Seo*·Kyu Wha Ch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en’s University

(1994. 10. 18 접수)

Abstract

This study, on the American hippies and their fashion, is composed of an examination of the following: the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of America in the late 1960’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ppies that appeared in the midst of the foresaid background, how those factors materialized in the hippies’ distinctive fashion and how they influenced fashion to come.

The hippies were composed of the young generation that revolted against all general conventional values of American society and seceded from it, seeking for the ideas of love and freedom. They expressed their newly defined culture-rock music based on drug culture, psychedelic art, rejection of an established society and ethnic tastes that sprang up from nostalgia concerning nature—by means of their own distinctive fashion. And as a revival of the hippies’ fashion, neo-hippie and grunge fashions newly appeared in the F/W season of 1992 and afterwards, adding fresher and more abundant sensibility to the original image and layered look of the hippies.

The hippies’ fashion has not only played a significant part in modern fashion history but will continue to exert its influence in the 1990’s as the hippies generation are presently the center of American culture and leaders of world culture. In conclusion, various sorts of “individuality” and “the pleasure in the wearing itself” expressed by the original layering of the hippies’ fashion presents new promise in the coming development of fashion.

I. 서 론

본 연구는 미국의 힐피(hippie, hippy)와 그들의 복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1960년대 말 미국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그 가운데 출현했던 힐피의 특성, 이러한 요소들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힐피 특유의 복식과 그것이 그 이후 패션에 미친 영향을 고찰 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의 패션산업쟁체가 계속된 가운데 힐피 패션이 1992년에 푸/동서문예 새로운 강각으로 재현되기 시작하였다. 힐피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반전과 사랑을 의미하며 자연에 싶혀졌던 건
후 베이비 봄 세대로, 그들의 페션은 1960년대 영의
이색적인 페션은 이색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향마다
인의 태도의 성장은 범위가 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다. 이러한 페션은 1960년대 허피세대들의 미국사회의
자유주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미국과 세계를 이글
고 있는 1990년대 초에 제등장했다는 사실은 미국사회의
기억에 자리잡고 있는 허피 폭력의 부터 갈음과 1990
년대와 1960년대의 정신, 사회, 경제, 종교, 종속사
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적 특수성을 갖춘 장점과
적한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다.

히피에 대한 연구로는 야블로스키(Leonard Yablonsky)의
『The Hippie Trip』 등이 있고, 허피 패션에 관한 국
내 선형연구로는 김인자의 『2차전전 후 영국 청소년
화랑문화 스타일』과 나태희의 『New Wave Fashion』
등이 다른 여러 허피문화복식들과 함께 허피 페션을
다루며 있으며, 허피 패션만큼 주제로 연구한 예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허피의 근본적인 미국의 허피 패
션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 여전히 세계문화의 선도
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과거 1960년대의 허
피로 부터 취할 수 있는 유산과 그것이 1990년대가 그
이후 패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하게 보고자 하였다.

허피에는 그 사상과 생활방식에 따라 사회운동의 핵
심부를 차지하고 있던 순수한 허피들과 그들로 일시적
으로 추종한 모방자나 이태자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존재한 예술가들이 있다. 이 가운데 모방자나 예술가
부류의 복식은 순수한 허피 복식의 이미지를 당시의
변화적인 페션 흐름이나 의생활 환경과 협상하여 제안
한것으로서, 일부만의 의미에서 허피 자체만의 복식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look) 이라
고 하는 것이 대개 어떤 이미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대중 패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순수한 이미
지 자체보다는 재현된 형태가 대중화를 위한 과도기
적 표현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
서 모방자나 예술가의 복식도 1960년대 허피복식의
구분법에 포함되었었다.

한편 당시 부족풍의 허피 페션 또는 일반에 대중화된
이후 기성부으로 억압된 허피 패션은 순수한 허피 패
션의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구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모두드(mode)는 외부에 의해서 보여진 인간의 삶
의 방법, 생활체, 인생체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외부에 나타난 모드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인간의 인생관, 세계관과 그 배경이 된 사회, 문화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960년대에 출현한 허피
패션도 예외는 아니었다. 허피패션을 통하여 당시 젊
은 세대의 인생관과 나아가서는 사회문화적 성격을 이
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허피 출현의 시
대적 환경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끝으로 1960년대 허
피의 복식을 그 배경이 된 사상이나 문화적 환경에 따
라 분류하여 각각의 표현 형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허피 패션으로 받아들여
지키 이전거리의 보다 순수한 허피 복식을 연구하기
위해 허피 관련 문헌에 수록된 1960년대 허피들의 실
제적인 사진자료를 활용하였다.

II. 허피의 출현과 그 시대적 환경

“히피(hippie 또는 Hippy)”라는 명칭은 원래 이
전기의 음악가들과 여러의 보헤미안들이 붙여준 다
소 결손한 느낌의 별명으로서, 20세기 초에 제즈 음악
가들 사이에서 썰이 시작해 50년대 중반부터 beat세
대에 수용된 언어, “hep”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Webster사전에 의하면 Hippy를 심기증증환자
(hypochondriac)로 정의하면서, 그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 “hipped”를 “착각신, 원인이 없는, 비어진적
인 것에 관심이 많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로잡힌 상태
(depressed: low-spirited, and having one’s interest
unreasonably centered: obsessed)”라 서술하고 있
다.

허피 출현의 가장 적절적인 근원은 보헤미아주의의
전통 속에서, Sartre와 de Beauvoir의 심신주의적
적 가치 허무주의에 기초하며 행동에 대한 일체의 제약과
전통을 거부했던 비트(beat) 세대로 이어진 롤탄다.
1950년대 미국은 경제적 상황의 최악기와 동일요의
양상이 급격히 대두되어서 구성원 개개인은 거대 조직
사회의 한 부속으로 정착하고 있었으며, 비트 세대의
영향은 젤리포니아의 재 키로우(Jack Kerouac)이나
앨런 긴스버그(Allen Ginsberg) 같은 신비주의적이고 실험적인 젊은 작가들은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시작했고.

이들 비트족은 1960년대 초에 보니스 레스트(Venice West)와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의 중심부로부터 노스 비치(North Beach), 캘리포니아, 엑스탄 남동부를 거쳐 샌 프란시스코의 하이트 애서브(Haight Ashbury)의 아서브 Hashbury 지역으로 나왔으며, 그후 Hashbury는 보헤미아인들의 새로운 요람으로 성장하여 히피의 중심지가 되었다.

미국의 1960년대는 자본주의 체제의 해체이자 내에서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 여건과 발전을 보장해 줄 수로써 민주주의의 허물은 실효하려는 최망과 함께 시작되었고, 경제적 성장이 동반한 부의 편제와 케네디와 존슨이 이른 민주당의 다스 지나칠 정도의 자유주의적 분위기는 사회적의 의식있는 소외집단들로 하여금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새로운 정신을 주장하게 하였다.

1964년부터 미국의 전남전 개입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면서 반전운동과 반향의 물결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기존체계에 대한 반향의 중심이 된 세력은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은 투쟁의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보고자자 자신의 양심과 이상이 이곳으로부터 자유로이 행동함으로써 인격적이고 창의적인 기존체계에 반기를 들어 일어났다. 이들 청년층의 반항의 유직은 기존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한 근본주의의 신좌파와, 반대로 기존사회에서 이탈(dorp-out)하여 평화적 해결방안을 추구한 히피의 무결대로 나뉘어졌다. 특히 힘든들은 사람과 평화의 구호를 외치며, 서서히 자신들의 사회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동일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히피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악마들이었다. 청년기의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흥미가 있는 것이지만, 특히 힘든들은 과도하게 자기에의적 성향을 뛰어 개인이나 공통체의 크고 작은 교인들이 해롭고 반항에 장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기존 사회로부터의 도피나 보다 의미있는 삶에의 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악마들이었다.

악마문화는 희생의 지도자로써, 1960년대 말 희생의 주체를 당시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모시켰다. 새로운 희생의 관용적이고 불안정한 트렌드의 성남된 강렬한 운동은 힘든들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생활방식과 완벽하게 조화되는 것이었다. 그레이트셀 테드(Graeteful Dead), 제퍼슨 에어플레인(Jefferson Airplane), 핌릭비 메신저 서비스(Quicksilver Messenger Service) 같은 공목들은 약물복용에서 희생하는 시청각적 혼란을 찾아와서 본질적으로, 롱링 스토네스(Rolling Stones)나 비틀즈(Beatles) 같은 영국 그룹들도 실험적 새벽을 틀리면서 변모하고 있었다. 특히 이와같은 변화의 절정을 이루었던 우드스톡(Woodstock) 록 콘서트(1969)는 힘든철학가 기존 체제에 대한 단단한 거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체제의 정립임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마약문화의 문출구는 악마들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한 것같은 환자단체를 일으키며의 강렬한 백, 음향, 섹스, 진동의 동시 작용을 연합함으로써 인간의식의 확대를 시도한 사이키델릭 아트(psychedelic art)였다. 'Time'지는 당시에 세 번째로 성보인 미술포럼계임을 의한 사이키델릭 아트에 대해 "20세기의 유명했던 미국의 독신 스타일이 돼들어와 그 덕분에 미술계에서부터 캠프탄의 프린트에 이르는 모든 그래픽 디자인으로 벌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사이키델릭 아트 디자인은 포스터, 광고, 인테리어 제품뿐 아니라 스타일이나 옷가치 프린트에도 크게 유행하였으며, 히파들은 그 헌신한 세력은 자신들의 자동차에 매진하기도 했다.

미약을 복용하는 것과 함께 현실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소속과에서 이탈하여 재산, 여정, 여자들 공유하며 저급자족의 공동체 생활에 의탁하는 것 이었다. 또 전원 공동체 생활을 통한 자연에의 접근과 보다 심오한 세계에 대한 추구는 민속을(ethnic)예술이나 민속 공예 등 민속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경향은 갖춘가한 대마초나 불교의 사상에의 고찰 등을 구할기한 동양으로의 여행을 증가하면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한편, 성에 대한 명실 포함한 모든 가치에 있어서 힘든문화가 보여준 이전과는 판타지에 다른 접근이 문화적 변함에도 같이 이시기의 전 예술계에 파급되었 다. 이는 1960년대에 개막된 패지럼이 패지럼(Hair) 시행으로 반 문화 운동이 거세져가는 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III. 1960년대 말 히피 복식의 특성

1960년대 말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는 외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킴으로써 이세까지의 유형의 흐름을 역전시켰다. 패션은 저소득층이나 그들의 생활방식을 받아들여 고소득층의 젊은이들로부터 고소득층으로 상향전파 되는(upward-flow) 양상을 보였다.

이시기의 대표적인 청소년 패션은 히피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히피 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일의 다양성이었다. 그들은 보편적인 청바지에서부터 ethnic, nostalgia, 사이키델릭(Psychadelic), 침하던 미니와 힙스터(hipster), 그리고 전시대의 모즈(Mod)의 비트로 스타일에서 영향받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을 일관된 기준없이 창작자의 개성에 따라 고미네이트시켜 나타내었다.

히피 패션의 다양한 표현을 하나대로 정리하면 '반문화(counterculture)'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히피의 반문화의 성격을 그 조형적 의지에 따라 '저항과 악물문화', '사랑과 자연', 'ethnic과 nostalgia', '가족주의의' 네 부분으로 분류하여 정립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밀접한 연계를 찾아 본의상 나눈 구분일 뿐이며, 실제로는 모든 범주가 반문화라는 하나의 그룹에서 축발해 근본적으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하나의 복식표현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모임들이 배경을 창조한 경우도 많았다.

1. 저항과 악물문화

히피는 한국 사회의 도덕적·불결적 가치에 대해서 뿐 아니라 미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기존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기존사회에 대한 저항과 그결과 탈락하게 된 미야가 만들어낸 사이키델릭 문화 등, 자신들의 생활과 강경으로 그대로 청바지, 긴머리, 남녀 구분 없는 의복, 사이키델릭 아트와 독특한 음악을 통해 구현된 패션으로 표현하였다.

당시 히피들은 적은 사전자료에서 가장 혼란하게 볼 수 있는 청바지를 비상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지적했던 것처럼 “기생세대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저급한 대용품”이었다. 히피들은 기생세대의 횡재 적인 패션과 경제적 감각에 대한 반감을 낼어서 채어놓거나 일부러 빼어 입은 것으로부터 당시 유행하던 벨로리 채로(velvet pants, 팔.tap.pants)에 이르는 다양한 스타일에 집, 패치워크와 같은 자수, 코인팅 등 의 장식을 더한 계층적 정착자를 품어 표현하였다.[그림 1].

[그림 1] 정식한 청바지,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영국의 독특한 가수들에서부터 시작된 남성의 긴머리가 영국 전역에 확산되어 유행된 것도 특기할 대한 모방, 자연화되어의 경향, ethnic취미, 신비주의의 종교적·심리적 영향도 있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긴머리가 갖는 자유와 반항의 이미지가 당시 젊은이들 의 요구에 잘 부합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남녀가 모두 앞가로마를 탄 긴머리를 그대로 눌러드리거나 이마에 헤드밴드(headdband)나 볼티나(bandana)를 매었으며 수영을 기르기도 했다.[그림
2].

동시에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권운동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역임으로부터 벗어나 운음을 진취 내적 자유를 반영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김머리에 화려한 옷과 악세사리 를 걸치고, 여성들은 긴 이 여성다운을 추구하려하지 않는 성향이 농아남으로써 결국 남녀가 동일한 헤이 스타일과 의복을 공유하는 유니세스 포모도로 변화하였다.


마약문화의 또 다른 전파체제는 록음악이었다. 록 가수들의 음악과 의상은 당시의 모든 화장과 가성상을 인상의 환각적인 이미지 속에서 상징화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을 열정시켜 공동의 고리가 되었다. 그 노래와, 의상, 무대무대 등은 기독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져 젊은이들의 반항적인 성향과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록가수들 중에서도 가장 환각적인 음악을 연주했던 제미 헬드릭스(Jimi Hendrix)의 무대의상은 [그림 4] 화려한 색상의 이국적인 서조, 프랑스 정식의 베스트, 긴게 놓여진 샷시(sash)와 레드베드, 요란한 비스 등 인디언, 유인, 진지 ethnic의 요소들을 다양하게 혼합시킴으로써 후에 헤비메탈(heavy metal) 록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제니스 조플린(Janis Joplin)의 형용어진 머리, 코로와 형이상장 에서 샬록한 모피, 키파, 구석의 모조 보석류, 은은 세련된 도레이퍼리나 레이스류 등을 매스컴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이 이를 모방하였 다. 세계적 유명이었던 Beatles가 하퍼돈으로 변모한 것도 하피 페어의 확신을 더욱 가속화시킨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밖에 당시 근대문화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군복, 군모, 군화를 착용한 히피들의 모습에서
군복을 왜곡되게 표현함으로써 그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2. 사랑과 자연

"Make love, not war"를 슬모견으로 한 히피의 반
전통문화운동에서 사랑의 상징물로 이용된 것은 "꽃"이
였다. 정치적으로 가장 도발적이 없으면서도 효과적으
로 접한 세대를 상징할 수 있던 꽃의 모티프는 히피
들과 그에 동조하던 젊은이들의 패션에도 도입되었다.
사이키델릭 패턴 (psychedelic pattern)의 꽃무늬 서즈
나 재킷, 스커트에서부터 꽃무늬 헴과 선글라스 등에
이르기까지 꽃을 모티포로 다양한 다자인이 선보였
으며 [그림 5]는 청바지나 스니커 등에 그러려는 무
늬에도 이용되었다.

히피들은 꽃을 것들 등의 자연물들과 함께 머리나
모자에 꽃%!지 목걸이나 화관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
들의 이러한 꽃들심은 사랑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자연
감정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소비문화의
극심한 물질주의로 퇴색한 도시의 인공성에서 벗어
나 순수하고 가식없는 자연의 전선미를 추구하려 한
목가적 이상향에의 동경은 거리낌 없이 유희도축이나
안달자립으로 표출되었기도 했다. 그 결과 자수, 손뜨개
등 수작업을 부활시키고 자연심유와 천연염료를 선호
하는 흐름을 가져왔다. 이런 경향은 민속조 의상이 유
행하게 된 제기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3. Ethnic과 Nostalgia

히피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미
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괴로움을 이중적
인 것과 과거에 대한 흥미로 대체시켰다. 기존의 미국
문화에 대한 거부와 자연에 대한 향수에서 섞은
ethnic에 대한 괴로움이 젊은세대에 급속히 전해 나갔으
며, 다양한 이국적 요소들을 통과하게 수용해 독창적
으로 모더니즘으로써 그들 특유의 널마와 같은 패
선을 창조해 냈다.

먼저, 1960년부터 1967년까지 센프라니소스코 Hashbury에서 북은 허피 서민들을 수록한 G. Anthony의 저서 「The Summer of Love」를 중심으로 살펴본 허
피의 ethnic 취향을 디테일별로 그 근원지에 따라 분
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디언: A 라인 블라우스, 폴리 에 스카프, 투
닉, 위방, 타이 다이, 프린지, 해드 
벤드, 비츠, 인디언 마블러스, 인디언 
귀고리, 아파치 배, 스쳐 부츠, 나바 
호 헤이, 킥힐로 만든 머리장식
2) 유 립: 패치워크(patch work), 셰쉬(sash)
3) 서अ시아: 카프랄, 아프카니스탄의 조끼와 코 
토, 파키스탄의 조끼
4) 인 도: 사리(sari), 패일리 무늬, 카스트 
마크
5) 중 남 미: 벡시코의 톱초, 세라피(serape), 
페루의 니트 백
6) 동 남 아: 인도네시아의 타이 다이, 바릭, 폴 
리네시아의 붓신
7) 아프리카: 아프로 헤어(afro hair), 신체장식
8) 기 타: 접시품의 플래어 스카프, 집시 금고 
리, 두건, 소용

「Vogue」지가 “Do your own thing”이라는 허피 습 
로건을 제목으로 영국의 민속조 상점들에서 판매하는 
민속조 의상을 소개한 기사에 의하면, 이러한 민속조 
의상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이 외국이나 엑세서리이나 특히 인디언 
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많은 주된 이유는 인디언들의 
자연적인 생활방식과 무족 내의 경축에 대한 동경, 백 
인들에게 거지같은 빼앗기고 보호받을 소 
수민족의 미국 기관사회를 향한 저항정신에 대한 심경 
적 동조로 볼 수 있다. 또 허피의 중심지였던 셰피로 
니아가 인디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서부에 위치한 
다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 시기에 많이 제작되고 있던 
서부영화물에 등장한 인디언 배경 배우들의 의상 등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비즈는 대부분 천연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허피의 자연취향의상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관광객을 상대로 거리에서 판매함으로써 허 
소생계를 벌여들리는 수단으로써 둘이나 자신들의 
상상과 패션을 일반에게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도 했 
다.

또 허피들 사이에서 동양적물이 유행되었던 동양 문 
화와 종교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동양적물이 갖는 부 
드러운 촉감이 아동복용 상태에서 느끼는 환각적 경험 
과 성적 자유가 가지다 주는 향락적 매력을 연상시켰 
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시기의 특정적인 소재인 벨벳 
은 치마를 줄길 보통 허피들 보다는 Janis Joplin과 
같은 록스타들의 무대의상이나 부유층의 허피 취미를 
위한 디자인 제품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서상은 민속복이나 동양종교의 영향을 받은 강렬한 
것들도 많았으나, 지나치게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 보
다는 오래 입은 옷에서 느낄 수 있는 낡은 듯한 분위기가 생호되었다. 따라서 회색, 연한 보라색 등 바חלק 같은 느낌을 주는 색상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러한 색상을 블랙마치 통일하게 표현한 황지지 일색(타이 다이)도 히피의 대표적인 수공에 가운데 하나로 이용되었다.

한편 민속조의 이행과 함께 그 코디네이션 요소로서 nostalgia를 추구했다. 히피들의 nostalgia는 과거 어느 한 시기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 상황에서 밖어 나다운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이미지의 표현으로서, 영화 Viva Maria(1965)와 Far from the Modding Crowd(1968)가 부활시킨 어드와드시대 패션,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프럽, 아로마로의향수들 불러 일으킨 사이키델릭 툴립트 등이 다양하게 연출되었다.

4. 개인주의

히피 패션은 히피 철학인 사상적 근원으로 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풍부한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이는 히피문화가 공동체적 조화의 동시에 개인주의적 풍토를 존중하였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홍치기 연색, 난영(마티), 구슬 같은 민 숙공에 손뜨개, 자수 등의 수공예가 유행하게 된 것 도, 휴가시에 사회의 규격화가 가세한 이명성에서 벗어 나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그 보다는 오히려 대량생산품과는 달리 연중 보기에 비슷하지만 완전히 독자
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유니크한 만족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개성을 표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전의 누구도 그렇게 입은 적이 없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입는 코디네이션이다. 과격적인 코디네이션은 히피들이 자신들을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주정하는 표현법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보여 준 외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와 접근의 향상은 “느낌(feeling)”에 있었다. 즉 그들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기분좋게 느끼는 것을 잊고 있다면 잘 입은 것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

IV. 히피의 복식에 패션에 미친 영향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1960년대 말 히피 복식의 구체적 특성이나 이미지는 당대의 오타루로 컨텍스트와 후대 패션의 흐름에 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히피 이미지를 표현한 민속조와 사이키델릭 패션은 1967년 경부터 오타루로 컨텍스트와 도입되어 다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둘째, 겨자리에 히피한 청바지와 T셔츠 등 남녀가 특징은 외적을 임용으로써 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유니섹스 모드가 시작되었다. 세째, 이전에는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의복들을 자유롭게 섞어 입으면서 독특한 레이어드 복의 경향이 생겨났다. 넷째, 근본의 구
애받지 않는 개성을 있는 자기표현이 히피 이후 영국에서 탄생한 패션의 특징으로 그 맥이 이어졌다. 다섯째, 히
특히 힘피 패션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코디네이션에서 보이는 "개성"과 "입은 줄거움"은 패션 전반기로 맺는 영 스타트 패션의 디자인의 하나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패션의 흐름을 이해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이 패션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레이어링을 즐기는 코디네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레이어링의 유행에 주목하는 동시에 1960년대 말 힘파들이 그들의 독특한 레이어링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바물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3) 나재희, 'New Wave Fashion',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4) 조규화, 복식비학, 서울: 수학사, 212, (1988)
7)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9) 베니스 힐리어(조규화 역), 20세기 양식, 수학사, 240-246, (1993)
14) Nouveau Frisco, Time, 44-47, (April 7, 1967)
20) 베니스 힐리어, 알تأثير, 82, (1993)
22) 알تأثير, 82.
23) Burman, B., Fashion Revivals: from the Elizabthan age to the present day, Bastford, 95, (1981)
24) New Yourk: Do your own thing in St. Marks Place, Time, 171, (June 1968)